방송매체가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 흠 학* · 조 기 홍**

1. 서 론

최근 2009년 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97,821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고 2,18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경제적 손실 또한 17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해마다 산업재해로 10여만 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2천8백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재해율 1%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 0.7%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안전보건 의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문화의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내 방송국에서 제작되어 지상파로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방송을 토대로 그 실태파악을 하고자 한다.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은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안전보건 의식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안전보건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과 안전보건 상의 위험한 장면을 시청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보건의식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방송 제작시 안전보건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련 정부기관(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영국)에서 영화와 방송 제작시 필요한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제작자 협회(North America Broadcaster's Association, 미국)나 정부, 제작사, 관련 노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The Section 21 Health and Safety Advisory Committee, 캐나다 온타리오주)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경우(BBC, 영국)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

† 본 논문은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방송매체가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수정 정리한 내용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토대로 안전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프로그램이 일반 국민들의 안전보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보건 측면의 개선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에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에 대하여 무작위로 조사지를 배포하여 조사자가 설문에 대한 간단한 내용 설명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1,000부를 배포 총 949명이 응답하였으나, 결측치가 있는 응답자 13명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936명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 결측치를 포함한 응답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설문 응답의 결과로서, 총 936명 중 각 항목별 결측치를 제외한 설문 문항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분석은 MS-OFFICE의 EXCEL 패키지와 SPSS V18.0-PASW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량의 교차분석, 상관관계 및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안전보건 모니터링 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 요원 4명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원활한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연구진의 토의를 거쳐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10편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방송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설문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설문 응답자의 주요 연령층은 10대부터 40대까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으며, 설문 응답의 경우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응답을 청취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53.2%(498명)으로 여성 46.8%(438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여성	남성	합계
빈도	438	498	936
비율	46.8%	53.2%	100.0%

설문 응답자의 직업에 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학생이 가장 많은 응답(32.1%)을 하였으며, 생산직 회사원(28.8%), 사무직 회사원(14.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직업

	학생	전업 주부	사무직 회사원	생산직 회사원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합계
빈도	300	97	139	270	104	26	936
비율	32.1	10.4	14.9	28.8	11.1	2.8	100.0%

우선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의 경우 각 설문 응답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복수 응답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항목별 응답의 빈도수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3> 연령에 따른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의 구성

		즐겨보는프로그램(복수응답허용)								전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음악순위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체험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기타	
10대	빈도	89	166	96	24	8	18	8	21	430
	비율(%)	20.7%	38.6%	22.3%	5.6%	1.9%	4.2%	1.9%	4.9%	100.0%
20대	빈도	129	159	68	44	29	22	11	9	471
	비율(%)	27.4%	33.8%	14.4%	9.3%	6.2%	4.7%	2.3%	1.9%	100.0%
30대	빈도	155	174	29	86	28	60	30	12	574
	비율(%)	27.0%	30.3%	5.1%	15.0%	4.9%	10.5%	5.2%	2.1%	100.0%
40대	빈도	124	118	10	88	29	55	20	10	454
	비율(%)	27.3%	26.0%	2.2%	19.4%	6.4%	12.1%	4.4%	2.2%	100.0%
50대	빈도	49	47	4	47	24	24	5	6	206
	비율(%)	23.8%	22.8%	1.9%	22.8%	11.7%	11.7%	2.4%	2.9%	100.0%
60대 이상	빈도	11	2	2	7	6	7	1	0	36
	비율(%)	30.6%	5.6%	5.6%	19.4%	16.7%	19.4%	2.8%	.0%	100.0%
전체	빈도	557	666	209	296	124	186	75	58	2171
	비율(%)	25.7%	30.7%	9.6%	13.6%	5.7%	8.6%	3.5%	2.7%	100.0%

주요 시청 TV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20대의 경우 드라마 또는 예능 프

로그램을 주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의 경우 다큐멘터리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비율이 10~20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60대의 경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시사, 체험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이 예능 프로그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의 시청 비율이 타 프로그램에 비하여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었다. ($p<0.01$)

<표 4> 성별에 따른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의 구성

		즐겨보는프로그램(복수응답허용)								전체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음악순위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체험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기타	
여성	빈도	310	313	105	130	45	63	48	21	1035
	비율(%)	30.0%	30.2%	10.1%	12.6%	4.3%	6.1%	4.6%	2.0%	100.0%
남성	빈도	247	353	104	166	79	123	27	37	1136
	비율(%)	21.7%	31.1%	9.2%	14.6%	7.0%	10.8%	2.4%	3.3%	100.0%
전체	빈도	557	666	209	296	124	186	75	58	2171
	비율(%)	25.7%	30.7%	9.6%	13.6%	5.7%	8.6%	3.5%	2.7%	100.0%

<표 5> 직업에 따른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의 구성

		즐겨보는프로그램(복수응답허용)								전체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음악순위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체험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기타	
학생	빈도	152	247	133	47	31	27	15	23	675
	비율(%)	22.5%	36.6%	19.7%	7.0%	4.6%	4.0%	2.2%	3.4%	100.0%
전업주부	빈도	72	62	15	39	15	19	22	2	246
	비율(%)	29.3%	25.2%	6.1%	15.9%	6.1%	7.7%	8.9%	.8%	100.0%
사무직	빈도	89	85	13	51	14	49	10	7	318
	비율(%)	28.0%	26.7%	4.1%	16.0%	4.4%	15.4%	3.1%	2.2%	100.0%
생산직	빈도	177	195	38	105	45	41	16	14	631
	비율(%)	28.1%	30.9%	6.0%	16.6%	7.1%	6.5%	2.5%	2.2%	100.0%
전문직	빈도	52	66	6	47	14	43	8	10	246
	비율(%)	21.1%	26.8%	2.4%	19.1%	5.7%	17.5%	3.3%	4.1%	100.0%
자영업	빈도	15	11	4	7	5	7	4	2	55
	비율(%)	27.3%	20.0%	7.3%	12.7%	9.1%	12.7%	7.3%	3.6%	100.0%
전체	빈도	557	666	209	296	124	186	75	58	2171
	비율(%)	25.7%	30.7%	9.6%	13.6%	5.7%	8.6%	3.5%	2.7%	100.0%

직업에 따른 주요 시청 프로그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의 시청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과 전업주부의 경우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의 시청비율이 높았으며 사무직 회사원, 생산직 회사원,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자의 경우 예능 및 드라마 이외에도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이 높아 각 직업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직업별로 주요한 관심사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p<0.01$)

<표 6> 연령대에 따른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

		평균 TV 시청시간				전체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시간이상	
10대	빈도	84	95	13	5	197
	비율(%)	42.6%	48.2%	6.6%	2.5%	100.0%
20대	빈도	57	105	30	10	202
	비율(%)	28.2%	52.0%	14.9%	5.0%	100.0%
30대	빈도	48	141	45	5	239
	비율(%)	20.1%	59.0%	18.8%	2.1%	100.0%
40대	빈도	49	106	34	4	193
	비율(%)	25.4%	54.9%	17.6%	2.1%	100.0%
50대	빈도	17	58	11	3	89
	비율(%)	19.1%	65.2%	12.4%	3.4%	100.0%
60대 이상	빈도	0	5	5	4	14
	비율(%)	.0%	35.7%	35.7%	28.6%	100.0%
전체	빈도	255	510	138	31	934
	비율(%)	27.3%	54.6%	14.8%	3.3%	100.0%

<표 7> 성별에 따른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

		평균 TV 시청시간				전체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시간이상	
여성	빈도	109	229	81	18	437
	비율(%)	24.9%	52.4%	18.5%	4.1%	100.0%
남성	빈도	146	281	57	13	497
	비율(%)	29.4%	56.5%	11.5%	2.6%	100.0%
전체	빈도	255	510	138	31	934
	비율(%)	27.3%	54.6%	14.8%	3.3%	100.0%

3.2 TV 프로그램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파악

다음의 설문 분석은 위의 설문응답자(시청자)의 TV 프로그램 시청 패턴 분석과 더불어 TV 프로그램 내용상의 안전 보건과 관련이 있는 사고 위험이나 불안한 내용의 방송을 겪은 경험, 프로그램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미칠 의식 수준의 영향 및 안전보건의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요 공중파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설문이다.

<표 8> 공중파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점

	흥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한 장면 연출	열악한 환경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치	과도한 신체사용	기타	합계
빈도	650	228	383	419	24	1,704
비율	38.1%	13.4%	22.5%	24.6%	1.4%	100.0%

공중파 프로그램 시청 중에 느낀 안전 보건상의 위험성에 관하여 다중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38.1%의 설문 응답자가 “흥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한 장면을 연출” 한 것이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과도한 신체의 사용(무리한 동작)”,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보호장구 미착용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시청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시청 중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중파 프로그램에서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9>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 사고 위험이나 불안한 내용을 경험한 인원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합계	결측값	전체 응답자수
빈도	556	201	176	933	3	936
유효응답 비율	59.6%	21.5%	18.9%	100.0%		
응답자 비율	29.4%	21.5%	18.8%	99.7%	0.3%	100.0%

평소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서의 사고위험이나 불안한 내용을 보았거나 느낀적이 있는지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유효응답자의 약 59.6%인 556명이 사고 위험이나 위험한 장면을 보았거나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절반이상의 시청자가 TV 프로그램에서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인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프로그램에서의 안전상의 위험성을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약 18% 이상 분석결과 예능프로그램이 569명(38.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드라마 443명(29.7%), 체험프로그램 162명(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장치 및 안전 보건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송의 재미를 위한 게임과 출연진들의 과도한 신체 사용 등을 시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표 10> 방송을 보고 나서 위험한 장면을 따라하거나 주변에서 흉내 내는 것을 본 경험

	있다	없다	합계	결측값	전체 응답자수
빈도	252	680	932	4	936
유효응답 비율	27.0%	73.0%	100.0%		
응답자 비율	26.9%	72.6%	99.6%	0.4%	100.0%

위험한 장면을 따라 하거나 주변에서 흉내 내는 것을 본 적인 있는 252명에 대하여 본인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설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32.8%인 82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이 나타날 경우 결국 이를 따라하며, 이를 통하여 신체적인 피해까지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방송에서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위기탈출 넘버원의 시청여부를 설문한 결과 89.6% 정도의 응답자가 위기탈출 넘버원을 즐겨보거나 가끔 본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시청자가 위기탈출 넘버원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한 적이 있을 경우에 위기탈출 넘버원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지에 관한 설문 결과 약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연령에 따른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안전사고 및 건강과 관련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연령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이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전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	결측값	
10대	빈도	9	16	90	66	15	6 (전체인원 대비 0.6%)	196
	비율(%)	4.6%	8.2%	45.9%	33.7%	7.7%		100.0%
20대	빈도	1	10	64	86	41		202
	비율(%)	.5%	5.0%	31.7%	42.6%	20.3%		100.0%
30대	빈도	3	10	33	127	65		238
	비율(%)	1.3%	4.2%	13.9%	53.4%	27.3%		100.0%
40대	빈도	2	3	20	116	51		192
	비율(%)	1.0%	1.6%	10.4%	60.4%	26.6%		100.0%
50대	빈도	3	2	13	53	17		88
	비율(%)	3.4%	2.3%	14.8%	60.2%	19.3%		100.0%
60대 이상	빈도	0	0	2	6	6		14
	비율(%)	.0%	.0%	14.3%	42.9%	42.9%		100.0%
전체	빈도	18	41	222	454	195		930
	비율(%)	1.9%	4.4%	23.9%	48.8%	21.0%		100.0%

<표 12> 위기탈출 넘버원의 시청

	위기탈출 넘버원의 시청 여부					전체
	즐겨본다	가끔본다	안본다 (본적없다)	합계	결측치	
빈도	221	615	97	933	3	936
유효응답 비율	23.7%	65.9%	10.4%	100.0%		
응답자 비율	23.6%	65.7%	10.4%	99.7%	0.3%	100.0%

방송 프로그램 중 마스크,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장구 착용장면이나 경고문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이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결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73.2%로 상당수의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 중 마스크,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장구 착용장면이나 경고문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이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방송 제작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위기탈출 넘버원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 여부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많이 된다	합계	결측값	전체 응답자 수
빈도	12	13	140	473	249	887	49	936
유효응답 비율	1.4%	1.5%	15.8%	53.3%	28.1%	100.0%		
응답자 비율	1.3%	1.4%	15.0%	50.5%	26.6%	94.8%	5.2%	100.0%

<표 14> 방송프로그램 중의 다양한 조치가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 여부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많이 된다	합계	결측값	전체 응답자 수
빈도	13	46	187	493	192	931	5	936
유효응답 비율	1.4%	4.9%	20.0%	53.0%	20.6%	100.0%		
응답자 비율	1.4%	4.9%	20.0%	52.7%	20.5%	99.5%	0.5%	100.0%

3.3 모니터링 분석 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방송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안전보건 방송모니터링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석하여 본 바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61회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 보호구 위반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량물 취급방법 위반 15건,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 위반 10건,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링 상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위반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부분 [체험 삶의 현장]등 체험 프로그램이나 [극한직업], [생활의 달인]등 위험한 직업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위반사례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직업을 연예인이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 삶의 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연예인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지적되었으며 흥미를 위해 중량물을 과도하게 운반하거나 근골격계부담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위험성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방영된 장면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는 아니지만 방송내용의 정황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조치 혹은 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면은 총 90건으로 대부분 매우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예방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1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방송 사례

	개인보호구 위반	중량물 취급방법 위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반	기타 산안법 위반	위험사례
1박 2일					2
체험 삶의현장	10	12	7	5	21
무한도전					2
공감 특별한 세상	2				3
패밀리가 떳다					2
생활의 달인	4	3			28
스타킹	1				13
극한 직업	8		3	6	19
계	25	16	13	12	90

(2) 고의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

오락성 프로그램의 경우 흥미를 위해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연출하는 모습이 많이 지적되었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는 아니지만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벌칙을 부여하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하는 장면이 다수 지적되었으며 흥미를 위하여 방송 진행과 아무런 연관 없이 고의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이 다수 지적되었다.

[1박 2일], [패밀리가 떳다]등 연예인이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흥미를 위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게임을 진행하거나 벌칙을 수행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으며 [무한도전]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부여하여 흥미를 유도하는 모습이 지적되었다.

특히 [생활의 달인]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미션을 수행하게 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미션의 경우 부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16> 고의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사례

	위험한 벌칙	위험한 게임	부상이 높은 상황 연출
1박 2일	2	3	3
체험 삶의현장			
무한도전			3
공감 특별한 세상			
패밀리가 떳다	1	3	
생활의 달인			3
스타킹			
극한 직업			
계	3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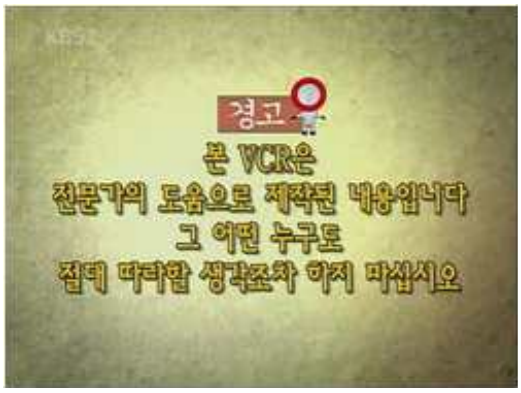
4. 연구결과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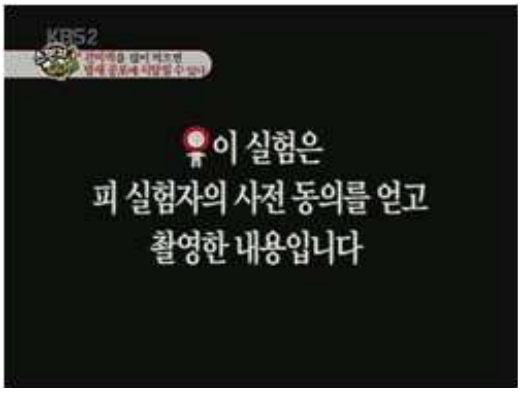
4.1 안전보건 예방에 긍정적인 프로그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노출시킨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의 안전불감증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경고 문구 삽입

불만제로와 위기탈출 넘버원의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상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위험한 상황의 경우 반드시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나레이션을 하는 성우 역시 수차에 걸쳐 경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사전 동의 사항

또한 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얻어 제작하거나 피실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촬영함으로써 실험에 대한 위험성 여부와 이를 직접 겪게되는 피실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4.2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의결 내역

방송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의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하여 방송에서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기간인 4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은 총 4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내역

	방송일자	의결내용	심의결과
KBS-1TV 전국노래자랑	2010.6.20	출연자가 벌을 붙인 상태에서 노래를 하고 이후 무대에 벌이 남아있음	권고
KBS-2TV 해피선데이	2010.7.18	출연자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아래에서 라면을 먹음	주의
SBS-TV 하하몽쑈	2010.7.4	각목으로 자신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내리침	주의
KBS-2TV 개그콘서트	2010. 7. 11	주걱으로 복부를 반복적으로 맞는 장면	의견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4건의 사항 중 1건은 본 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이외에도 본 연구 수행에서 나타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60건, 고의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사례 18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하지 않은 3개의 방송프로그램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을 추측해보면 실제 방송되는 상당수의 프로그램에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안전보건 상의 위험요인이 일반 국민들(시청자)에게 보여 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 국민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지는 안전보건 지식의 수준과 이를 통하여 형성되는 안전보건 의식수준을 파악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출연진(연예인)의 중대재해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방송 제작시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송 제작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한국형 방송제작 모델 개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준수 할 수 있는 문화가 완성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방송제작 안전보건 준수 모델
방송 제작시 지켜야할 안전보건 모델을 개발하여 방송제작 기획단계에서 선행제작, 촬영, 사후편집 등 방송제작의 각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작진이 스스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야별 인덱스를 개발하여 방송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안전보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1.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서로 전달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보건 내용의 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함으로서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제제하고 개선해 나간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규정의 신설에 활용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한다.
⑯ 방송은 안전보건 상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신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어려웠던 점을 분석해보면 국내외 처음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 및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연구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으며, 외국의 사례조사는 외국 방송사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여 홈페이지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인용함으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일부 체험프로그램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드라마, 시사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방송제작과 관련한 안전보건 실태를 평가하지 못함으로서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한 안전보건 정착을 위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 금연장면이 사라지게 된 과정,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는 과정 등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안전보건이 방송프로그램에서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 등의 연구도 필요하며, 방송매체가 안전보건의식 및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